

## 광주 특급호텔 유치 과정과 전망

민선 5기 들어 광주시는 특급호텔 건립에 올인 해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광주에 특급호텔을 건립해주세요 요청해왔으며,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특혜수준의 인센티브까지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

지 시기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중인 특급호텔들이 대부분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특급호텔 추진 과정과 전망을 살펴본다.

## 수익성 낮아 번번이 무산 파격 인센티브 없인 난망

▲특급호텔 추진 과정=민선 5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0년 10월 광주시는 국내 투자자와 500억원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 투자자의 재정 여력이 확인되지 않아 포기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에는 강 시장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업체와 5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중국 측이 카지노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국내 투자자가 동구 대의동 등부경찰서 일대에 특급호텔 건립의사를 밝혔지만 광주시와 협의과정에서 투자 여건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이 투자자는 2500억 원을 들여 동부경찰서와 주변 사유지 530여평에 40층 규모의 특급호텔을 짓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매수 거부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문제 등이 장애물로 작용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시청 옆 부지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700실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공모마감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아 역시 무산됐다. 광주시는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를 변경해주고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부지 매입비용이

U대회 등 잇단 국제행사

수요 늘어 건립 시급

카지노·유통매장 등

수의 담보할 시설 필요

예상보다 많은데다 순수 숙박업만을 허용하는데 따른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자 공모에 실패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국내 대기업인 E그룹 노너처 인사들이 광주시를 방문,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를 둘러보며 호텔립 부지 등을 물색했지만, 이 기업 측이 지난치에 많은 요구조건을 내세워 개설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무산됐던 것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급호텔 유치 전망=지역관광업계에서는 특급호텔을 '관광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여기고 있다. 광주시 역시 광주가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특급호텔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6월 이후 광주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 30건으로 4만600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하게 되며, 앞으로 추가 유치될 학회들까지 감안하면 올해 최소 5만여 명이 광주를 찾게 된다.

▲투자 왜 안되나=전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투자자들이 움츠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하지만, 지역에서는 특급호텔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인구가 150만명에 불과해 자체적인 호텔 수요에 한계가 있는데다, 하루 묵는데 15만~30만원이 드는 호텔을 자주 이용할 만한 경제력을 갖춘 수요층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

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 든지 오랜 상황에서 별다른 관광·놀이시설 없이 순수 숙박부분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수익성 저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카지노나 대규모 유통매장처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국내법상 여의치 않은 것으로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과거 전남도가 세계 최대 카지노 재벌인 미국 샌즈그룹의 셀린 아델슨(80) 회장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요청했다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개설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무산됐던 것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급호텔 건립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들은 적지 않지만, 실제 건립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밭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주의 투자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특급호텔 주가 건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특급호텔 '홀리데이인 광주'

션센터가 완공되면 각종 학회와 전시회 광주개최의 기폭제가 될 예정이어서 특급호텔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투자를 실행할 만큼 높은 수익성이 담보되거나, 낮은 수익성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 한 특급호텔 유치는 종전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 이 크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특급호텔 건립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들은 적지 않지만, 실제 건립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밭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주의 투자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특급호텔 주가 건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철거 임박 서구 '영화 아파트' 활용방안 관심

#### 마지막 1세대 주중 매입…공용주차장 조성 등 검토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영화 아파트'의 철거가 임박하면서,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3일, 지난 1983년 11월 준공돼 30년이 지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화아파트 101동 중 마지막 1세대의 매입을 이번 주내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화아파트는 지난 2001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보수를 하지 않아 결국 지반 침하와 벽면이 기우는 현상이 발

생하면서 붕괴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지난 2005년 안전진단 결과로는 '보수해도 거주하기 어려운' E등급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서구는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에서 예산 10억을 지원받아 영화

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화아파트는 지난 2010년에 부지 매입이 결정된 직후 해당 부지를 광용주차장으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편, 광주시의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는 지난 1979년에 지어진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 1975년에 지어진 생촌동 생촌아파트, 광산구 송정동 주공아파트(건축연도 1983년), 남구 주월동 장미아파트(건축연도 1981년) 등이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성무지구 세정이울렛 3층]

062) 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 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 360-0166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궁전에식장 간너페]

061) 742-1270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병원]

061) 287-4100

2013 FW 허니문페어  
최대 50만원 할인

예약기간 2013.6.1-6.30 출발기간 2013.9.1-2014.2.28  
[사전예약할인] 상품에 대해 할인 적용, 상품세목 확인  
기간 중 예약 커플(2인 1쌍)에 최대 50만원 할인 제공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온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가세요!

신비로운 그곳, 백두산 여행

청주출발

[CNPD-C2] 중국남방항공 '광주-청주 국내수송 30원 포함 출발일 : 7월 21일-8월 31일

매주 수요일(3박5일) / 토요일(3박4일)

연길/백두산 4일/5일 \*북파\* 499,000원 ~

\*본관: 백두산 북파 고즈 관광, 용정 / 도문 기본 관광

\*호텔: 3성급 / 4성급 호텔

\*항공: 청주국제공항

\*기타: 청주국제공항

\*숙박: 청주국제호텔

\*여행: 청주국제여행

\*기타: 청주국